

아프리카중의 아프리카



Alliance In Mission for South Sudan

남수단선교연합(AIMS)

P.O.Box 103
Adjumani, Uganda
Tel: +256-77-191-1358
+256-77-775-7565
Email: ojimission@gmail.com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비가 요즘은 거의 매일 밤 폭우로 변해 내립니다. 이렇게 많이 내리면 자대가 낮은 우리집은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흙을 사다 메웠지만 진입도로가 다 패여 나가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기가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난민사역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갑니다. 그간 보내 드리지 못한 밀린 선교보고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 신학교 소식

1. 신학교(Acts Bible College)는 지난달 28일 종강식을 마치고 한달여의 방학에 들어 갔습니다.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는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학교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덕분입니다. 특히 이번학기에 여러 외래 강사진을 초청하여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번 학기 기초실력이 뒤진 누에르족 학생 하나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학문적인 기초가 없이는 학교수업을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2. 이번학기에는 한국 성서대학교 박태수교수님(조직신학) 그리고 하늘정원교회 배정환 목사님, 드물게 학위를 가진 Bishop Idro, John Konyi 목사 등 여러 외부강사들을 초청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준 높은 강의에 매료되어 현재의 로컬 강사진을 전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3. 남수단 주바에 있는 몇몇 목회자들이 주바에도 와서 강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바에서 온 신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사역이 남수단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사역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기간>

<수업광경>

2. 바게리냐 유치원

1. Pagerinya 난민촌의 Grace 유치원은 담장공사를 완료하고 교실 벽면에 벽화를 그려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담장이 없다 보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까지 몰려와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지는 등 관리가 어려웠는데 부지 전체(150mx60m)를 막고 나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벽에는 멋진 벽화를 그렸습니다. 우물설치로 인하여 넓어진 부지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확장하고 운동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정문 경비실을 완공하면 아름다운 난민촌내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부지 확장 공사>

<유치원 아이들 교복>

2. 지난 7월 29일 팀앤팀의 단기 선교팀 20여명이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보수해 주었고 아이들과는 게임과 노래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게리냐2 지역의 탄달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에게 특별히 위생 및 생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담장 공사중>



<유치원 기말고사>

3. 마지3 유치원

1. MaziIII 난민촌의 유치원(힐탑유치원)공사가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낙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 건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재들을 아주마니 타운에서 다 사다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31일~8월6일까지 이 유치원 건축을 지원한 WECA의 봉사팀들 그리고 홍보대사인 유승옥씨등이 방문하여 준공식과 함께 난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 등 봉사활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2. 대부분의 당카족들은 여자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이 지역에 유치원이 생기자 많은 여자아이들이 유치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날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교복과 가방을 선물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학부모들이 너도 나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한반의 정원을 제한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년 2019학년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4. 아고조 고아원

1. 고아원은 여자 기숙사의 배란다를 확장, 도색 하였고, 빗물저장 물탱크도 2개 설치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빗물을 받아 빨래를 하고 즐거워 합니다. 아울러 남자 기숙사(30평)도 추가 완공하였는데 이 건물은 숙소 겸 공부방, 컴퓨터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 . .
2. 우리 고아원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찬양리더나 키보드 연주 등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7학년 4명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3. 이곳 아주마니 난민촌 지역에는 총 6개의 고아원이 있습니다. 모두 외국의 지원을 받는 고아원들(미국, 네델란드, 슬로바키아)인데 한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유일한 고아원인 Little Angel's Home이 관할기관의 평가결과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들 고아들을 위해서는 러브인 어스, 웹투어여행사, 이빛선교회, 기타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 . .



새 담요를 지급



증축 남자 기숙사



5. 각 지역교회 소식

A. Agojo 임마누엘교회 :

지난 9월 13일-15일 3일간 제2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보아, 마지등 임마누엘 지교회에서 거의 150여명이 넘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특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재정문제로 그동안 미루어 왔던 교회바닥(타일공사 및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곧 주일학교(유치부, 유아부)아이들을 위한 예배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B. Iboa 임마누엘교회:

1. 이보아 교회에 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 성담교회 권사님 한분이 칠순기념으로 우물을 파 주셨는데 매일 거의 100여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물을 길러 옵니다. 이제 이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인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아주 좋은 접점이 생겼습니다.
2. 김순기목사님(월드미션선교회)께서 기둥만 세워진 아고조 교회 건축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벽체를 쌓고 있는데 내달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장소에 아주 필요한 교회를 이룸답게 건축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3. 이 지역 난민들은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어서 사는 형편이 매우 열악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목숨만 연명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인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난민들중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수가 살해당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 C. 바람말리 임마누엘교회:
- 바람말리 교회는 담임 사역자인 Martine 전도사가 거주할 사택을 교회 옆에 착공하였습니다. 아직 지붕은 씩우지 못했는데 이 주택이 완공되면 바게리냐 난민촌에 있는 가족들을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이 교회는 쿠쿠족들이

주축이 된 교회인데 Martone이 내년초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임사역자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 D. **마지3교회:** 마지3 임마누엘 교회는 WECA 유치원 공사와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무아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중심교회로 여러 교회들의 모임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한 딩카족들 인지라 좀 거칠고 관리가 힘든 점은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E. **보롤리 선한목자교회:** 실룩족들이 모이는 이 교회도 드디어 벽체공사가 완료되고 기둥을 보완하였습니다. 비록 층고가 좀 낮아 아쉽지만 그런대로 유용한 예배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난 9월23일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날 성찬식예식은 은혜와 큰 감동으로 진행된 교회축제였습니다.
- F. **비디비디 실룩교회:** 지난 9월 6~8일 3일간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룩교회, 그리고 누에르 장로교회, AIC 교회가 연합으로 드린 이 집회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비록 종족은 다르지만 같은 남수단 백성들로 남수단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 G. **비디비디 AIC교회:** 2년전에 100만원으로 시작한 AIC교회는 그동안 간이 벽체인 대나무가 비로 다 썩어서 이제는 거의 허물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붕 천막 역시 비가 새서 보완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자갈을 모으고 우선 벽돌을 찍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비디비디 난민촌 역시 워낙 외진 골짜기에 위치하여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제목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 교회 사역사진들 >



<바람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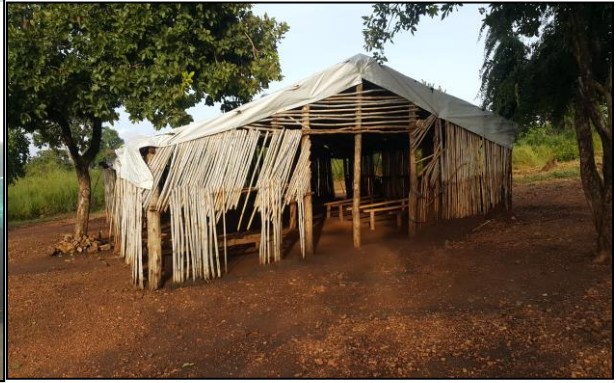
<연합청소년 수련회>



<이보아 교회 건축 중>



<어린이 봉헌예식: 보롤리교회>



<비디비디 AIC교회>

6. 기타 소식

- A. 팀앤팀 단기선교팀이 바게리냐를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합선교팀으로 이들은 게임과 율동 노래 등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며 또한 탄달라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 생리대를 전달하였습니다.
- B. NGO WECA의 홍보대사인 배우 유승옥씨가 마지3 유치원 준공식 참석차 난민촌을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도 남수단 방문에 이은 두번째인데 인면이 있는 고아원 아이들과는 감격적인 재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땐 아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 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 C. 난민들의 난민촌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루아 지역에서는 딩카족 청년들이 지나가던 마디족 여학생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디족들이 딩카족 주택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바게리냐 난민촌에서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어느 여자 목회자를 지역청년들이 돌로 살해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수십여명이 구속 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남수단에 진정한 평화가 속히 와서 이들 난민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유엔에서 난민자격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촌 유입 인구가 계속 늘고 곡물의 조달 배급이 어려워지자 난민자격을 전면 재 심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틈타 많은 우간다인들이 남수단 난민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E. 남수단 난민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에 소리 없이 동참해 주신 귀한 선교동역자 여러분들께 하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가득 채워 지기를 기도 드립니다.

7. 기도제목입니다.

1.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선교 동역자 및 신학교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3. 이보아 교회 건축공사가 잘 마무리될 질 수 있도록
4. 방학기간중 한국을 다녀 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각 사역지(유치원, 고아원, 신학교, 센터, 여러 지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도록..
5.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2018년 10월 3일

신현가, 김경숙 선교사 드림.